

지 30년이 넘는 도심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선수촌으로 활용하고, 대회 개최 후 이를 분양하면서 선수촌 건립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했다.

경기 시설도 국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영장과 양궁장,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등 4개 경기장을 제외한 66개 시설은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 썼다. 신축 경기장은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등 사후 관리비용 최소화에도 역점을 뒀다.

하프 마라톤과 경보 같은 종목은 같은 코스를 여러 번 뛰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일부 경기장의 좌석은 접이식으로, 선수 대기실은 간이 몽골텐트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당초 8천71억원이던 총 사업비를 수차례의 조정 에 걸쳐 6천172억원으로 줄였다. 1천999억원을 절감한 것이다. 광주U대회의 대회 운영 경험은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전수되기도 했다.

2015 WBSC 프리미어 12

(2015. 11. 8 ~ 21, 일본 · 대만)

■ 프리미어 12 초대 챔피언 대한민국



▲ 11월 21일 일본에서 열린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회 결승전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 이대호(왼쪽)와 경근우가 시상식에서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12 초대 챔피언의 주인공은 한국이었다.

김인식 감독이 이끈 한국 야구대표팀은 11월 21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결승전에서 미국을 8-0으로 완파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역대 최악체’라는 혹평에 시달리며 많은 걱정을 안고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로 떠났던 김인식 감독이 대만 타이베이-타이중-일본 도쿄를 지나며, 한국 야구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11월 22일 김포공항으로 금의환향했다.

당초 우승을 기대할 수 없는 전력이었다. 메이저리거 류현진(LA 다저스), 강정호(피츠버그), 추신수(텍사스), 일본파 오승

환(당시 한신 · 현 세인트루이스),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 윤석민과 양현종(이상 KIA)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차출 반대와 부상 등으로 프리미어 12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다.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터진 도박 파문으로 윤성환, 안지민, 임창용(삼성)도 빠졌다. 한국시리즈 종료 뒤 곧바로 대회가 시작돼, 조직력을 다질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한국 야구 대표팀은 경기를 치를수록 강해졌고 4강전에서 WBSC 랭킹 1위 일본, 결승전에서 야구 종가 미국을 차례대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전력이 약했던 만큼 이번 대표팀이 프리미어 12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과정은 정말 짜릿했다.

■ 삿포로 참패··대만에서 극복

출발은 불안했다. 한국은 11월 8일 일본 삿포로돔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일본이 자랑하는 괴물 투수 오타니 쇼헤이(닛폰햄)의 구위에 놀려 0-5로 완패했다.

익숙한 닛폰햄 홈구장 삿포로돔 마운드에 선 오타니는 60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 10탈삼진으로 막아내며 포효했다. 한국 타자들은 오타니의 시속 160km를 넘나드는 직구와 시속 140km대 후반의 포크볼에 농락당했다.

A조와 B조 예선을 대만에서 치르는 일정 중, 한국과 일본의 B조 개막전만 삿포로돔으로 배정된 일본의 의도는 적중했다. 흥행과 경기 결과 모두 일본이 예상한 대로였다. 한국은 피로만 안은 채, 남은 B조 예선을 치르고자 대만 타이베이로 이동했다.

팀 분위기를 살리려면 예선 2차전 도미니카공화국과 경기 승리가 절실했다. 그러나 한국은 7회 시작 전까지 도미니카공화국에 0-1로 끌려갔다. 침묵을 깰 한방이 필요했다.

이때 이대호(소프트뱅크)가 역전 투런 아치를 그렸고, 한국은 7~9회, 30이닝 동안 10점을 뽑아 10-1로 승리했다. 김인식 감독은 “도미니카공화국전 승리로 삿포로 참패를 잊을 수 있었다. 이후 타선이 살아나 예선을 통과했다”고 돌아봤다.

이후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멕시코를 완파하며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승부치기까지 펼친 미국과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는 심판의 오심 속에 2-3으로 패했지만, 8강전에서 아마야구 최강 쿠바를 7-2로 제압해 4강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동시에 일본에 설욕할 기회도 얻었다.

■ 도쿄돔 대첩··일본, 미국 꺾고 우승

프리미어 12의 하이라이트는 11월 19일 도쿄돔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4강전이었다.

결승으로 가는 길목, ‘일본야구의 심장’ 도쿄돔에서 일본과 마주한 한국은 “일본전에 두 번 연속 패할 수는 없다”고 결의하며 그라운드에서 섰다. 하지만 오타니는 여전히 위력적인 구위를 뽐냈다. 오타니는 70이닝 동안 안타 한 개만 내주고 삼진 11개를 빼앗으며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일본에 3점을 내주며 벼랑 끝으로 몰렸다.

하지만 한국 야구 대표팀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 야구의 심장부에서 일본을 마지막까지 압박했다. 9회초,

극적으로 도쿄돔 대첩이 완성됐다.

0-3으로 뒤진 9회 초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 한국은 대타 오재원(두산)이 노리모토 다카시의 체인지업을 공략해 좌전안타를 쳤다. 이날 한국의 두 번째 안타였다.

봉인이 풀린 한국 타선이 살아났다. 대타 손아섭(롯데)이 중전안타로 무사 1, 2루 기회를 이어갔다. 일본 선발 오타니에게 유일한 안타를 뽑아낸 정근우(한화)는 3루수 옆을 뚫은 2루타로 한국에 첫 득점을 안겼다.

한국은 더 큰 꿈을 꿴다. 무사 2, 3루에서 이용규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해 무사 만루를 만들었다. 일본은 노리모토를 빼고 마쓰이 유키를 급하게 마운드에 올렸다. 마쓰이는 부담감을 극복하지 못했고, 김현수는 차분했다. 김현수는 밀어내기 볼넷을 얻었다.

2-3으로 따라붙고 맞이한 무사 만루, 안타 한 개면 역전이 가능했다. 타석에 들어선 '대한민국 4번 타자' 이대호는 바뀐 투수 마쓰이 히로토시의 시속 134km 포크볼을 잡아당겨 좌전 안타를 쳤다. 3루 주자 정근우와 2루 주자 이용규는 신나게 내달려 홈에 도달했다. 4-3, 승부가 뒤집혔다. 오타니의 시속 160km짜리 직구에 환호하던 4만258명의 관중은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다.

한국은 9회 말 수비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4-3으로 승리해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세계 제일, 사무라이 재팬'을 외치던 일본은 3, 4위전으로 밀렸다.

결승전은 우승을 위한 세리머니였다. 한국은 박병호의 시원한 홈런포 등으로 '야구 중가'미국을 경기 내내 몰아쳤고 8-0 완승을 거뒀다.

김현수(당시 두산·현 볼티모어)는 33타수 11안타(타율 0.333) 13타점을 올리며 프리미어 12 초대 최우수선수에 뽑혔다. 이대호와 황재균(롯데)은 김현수와 함께 베스트 11에 뽑혔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일본은 '프리미어 12 초대 챔피언'이 되고자 노력했다. 일정과 이동 시간 등 모든 부문에서 일본에 유리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악재를 넘고 결승에 진출했다. 100% 전력으로 싸울 수 없는 환경에서 120%의 힘을 냈다. 김민식 감독은 "포기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고, 주장 정근우는 "꼭 우승하고 싶었다. 약체라는 평가가 오히려 좋은 자극이 됐다"고 했다.

제1회 프리미어 12 주인공은 한국이었다. 들러리가 될 뻔했던 대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섰다. 그래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든 트로피가 더 반짝반짝 빛났다. 상대를 배려해 세리머니를 자제했지만, 결과물 자체가 무척 화려했다.

[프리미어 12 전적]

- 예선
 - 한국 0-5 일본
 - 한국 10-1 도미니카공화국
 - 한국 13-2 베네수엘라
 - 한국 4-3 멕시코
 - 한국 2-3 미국
- 8강전
 - 한국 7-2 쿠바
- 준결승
 - 한국 4-3 일본
- 결승
 - 한국 8-0 미국

프로경기·기타 경기

프로축구

■ '강' 전복, 13년 만에 K리그 클래식 2연패

2015년 시즌 전복 현대는 13년 만에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2연패를 달성했다.

개막 전부터 '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전복은 시즌 초반부터 1위 자리에 올라 독주를 거듭한 끝에 비교적 여유 있게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영원한 '라이언 킹' 이동국이 변함없는 활약을 펼쳤고, 영 플레이어상을 거머쥔 이재성이 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전복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시즌 우승의 주역 김남일이 일본 무대로 진출했고 권경원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리그로 떠났다. 시즌 도중에는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던 에두가 중국 프로축구 2부리그 허베이 종지로 이적하면서 전력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근호를 영입하고 이재성, 이주용 등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전복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K리그를 제패한 성남 일화(현 성남FC) 이후 13년 만에 K리그 2년 연속으로 우승했다. 특히 최강희 전복 감독은 K리그 사령탑으로는 최초로 네 번이나 리그 우승 행가래를 받았다.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 FC서울 등 기업형 구단들이 전복의 뒤를 이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시민 구단인 성남FC도 5위를 차지했다.

FC서울은 대한축구협회(FA)컵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냈다. 반면 울산 현대는 하위 스플릿으로 밀리면서 체면을 구겼고, 부산 아이파크는 기업구단 최초로 챌린지(2부 리그)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 시즌 승격한 광주FC는 10위로 잔류에 성공한 반면, 대전 시티즌은 1년 만에 다시 챌린지로 강등됐다.

■ 상무, 챌린지 우승…수원FC 사상 첫 클래식행

챌린지에서는 상무 상무가 우승하며 클래식으로 복귀했다.

상무 상무는 승점 67로 대구FC와 동률을 이뤘으나 다득점에서 앞서 2013년 이후 2년 만에 챌린지 우승을 차지하며 또다시 클래식 문을 두드리게 됐다. 상무 상무는 10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병행하면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승격의 기쁨을 맛봤다.

챌린지 3위를 차지한 수원FC는 준플레이오프에서 서울 이랜드, 플레이오프에서 대구FC를 꺾은 뒤 승강플레이오프에서 부산 아이파크마저 잡으며 창단 첫 클래식 진출에 성공했다.

2003년 창단 후 3부 리그에 해당하는 실업축구 내셔널리그에서 뛰다 2013년부터 챌린지에 합류한 수원은 불과 3번째 시즌 만에 클래식까지 수직상승, 2016년 시즌 수원 삼성과의 '수원 더비'를 예고했다.